메뚜기 재앙(출 10:3–20) 이해

장석정 | 관동대

1. 서론

왜 메뚜기 떼인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재앙의 성격을 갖는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에 대한 이해와 애굽에서의 메뚜기 이해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질문들은 이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질문들이다. 고대 애굽에서는 메뚜기 떼는 특별히 골치 아픈 문제였으며, 이런 문제 때문에 애굽인들은 세네헴(Senehem)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이 신은 해충 떼에 의한 피해로부터 보호해주는 신이었다.[1] 그러나 이 신이 애굽에서 덜 중요한(minor) 신이었기 때문에, 왜 여호와가 이런 하급 신에게 모욕을 주는 재앙을 내렸겠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2]

---

1) John D. Currid, *Ancient Egypt and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Books, 1997), 112.

2) 윗글, 112. 메뚜기 떼로부터 애굽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의 신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 신들이 감당하는 일이었다고 본다.

www.kci.go.kr

이 재앙에서 묘사하는 메뚜기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인가? אַרְבֶּה(아르베)라는 단어는 집합 명사로서 '메뚜기'를 의미하며, 이 재앙에서는 아프리카 이주성(migratory) 메뚜기(*schistocerca gregaria*)로 추정된다.[3] 다 자란 메뚜기는 약 5-7센티미터 크기이며, 약 12센티미터의 날개폭을 가진다. 이 메뚜기들은 바람에 의해 떼로 이동될 수 있으며, 너무 많은 수가 떼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해가 몇 시간 동안이나 가려질 수도 있다고 한다. 이것들이 도착하면 방울뱀 소리가 나며, 식욕이 왕성하여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더욱이 알을 낳아 놓으면 애벌레가 생기고 그들이 또한 왕성한 식욕을 자랑한다. 간단히 말해서 메뚜기 떼는 파멸(destruction)의 전형(典型, epitome)이 된다.[4]

메뚜기 재앙 하나만을 다룬 연구보다는 열 가지 재앙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포괄적 연구나 주석서들을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5] 각 재앙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한 가장 학문적이고 상세한 연구는 호르트(G. Hort)의 연구가 대표적이지만[6] 1950년대에 나온 연구라는 단점이 있다.[7] 또한 최근의 과학적 접근방법으로는 험프리스(C. Humphreys)의 연구가 있다.[8] 험프리스에 따르면, 우박의 재앙에서 많은 양의 우박과 비가 애굽 땅에 많은 물기를 남겨 놓았고, 메뚜기들은 이런 땅에 알을 낳기에 적합했다고 한다. 더구나 이 메뚜기들은 보통 바람과 함께 날아다닌다는 것이다.[9] 즉, 메뚜기 재앙은 애굽의 자연적인 상황과 우박재앙과의 연관성 면에서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재앙들을 자연현상으로 설

---

3) 히브리어 אַרְבֶּה(아르베)는 '메뚜기 떼'라고 일반적으로 번역되지만, 단수 명사로 사용되고, 그에 따라서 동사도 단수가 일치되고 있다(12절, 13절, 14절).

4) Cornelis Houtman, *Exodus* Vol. 2 (Kampen: Kok Publishing House, 1996), 140.

5) 출애굽기에 대한 방대한 주석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Trans. by I. Abrahams: (Magnes, 1967); Brevard S. Childs, *The Book of Exodus: A Critical, Theological Commentar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4); John Durham, Exodus, (Texas: Word Books, 1987); Terence E. Fretheim, *Exodu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91); Cornelis Houtman, *Exodus* Vol. 2 (Kampen: Kok Publishing House, 1996); G. W. Coats, *Exodus 1–18*, vol. IIA, FOTL, (Grand Rapid: Eerdmans, 1999); William Propp, *Exodus 1–18*, AB 2, (New York: Doubleday, 1999).

6) John D. Currid, 윗글, 105.

7) Greta Hort, "Plagues of Egypt", *ZAW* 69(1957), 84–103; 70(1958), 48–59.

8) Colin J. Humphreys, *The Miracles of Exodus* (New York: HarperSanFrancisco, 2003).

9) Colin J. Humphreys, 윗글, 133–134.

www.kci.go.kr

명하려는 이런 시도들은 '시간적' 차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는 취약점이 있다. 즉, 모세가 손을 드는 순간, 혹은 바로가 정하는 시간에 재앙이 오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성서 본문의 내용은 자연적 현상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정한 계절이 오거나 시간이 되어야 나타나는 자연현상과 동일한 재앙이 내렸다고 해도 그것이 모세가 정한 시간에 내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연현상으로서의 재앙을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최소화 할 것이다.

열 가지 재앙들은 단순히 기적적인 이야기들의 모음이 아니라,[10] 여호와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도록 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열 가지 재앙 전체가 신학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11]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메뚜기 재앙을 단순히 땅에서 자라난 식물들이 피해를 보는 재앙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애굽 '땅'에 내리는 재앙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애굽 땅이 메뚜기로 인해서 황폐화됨으로써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외부적인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2. 본론

1) 재앙의 예고: 3-6절

메뚜기 재앙의 본문이 시작되는 3-4절에서는 지금까지 바로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반복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그들의 신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는 것이다. 4절에서 사용된 동사들을 보면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로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보내주지(שָׁלַח 샬라흐) 않으니까, 메뚜기 떼를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בּוֹא 보)는 표현이 그것들이다.[12] 결국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은 나가야 하는 대상이고, 이를 바로가 거절할 때, 메뚜기 떼를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메뚜기 떼가 애굽 땅으로 들어감으로써 이스

10) 각각의 재앙들에 대한 우리말 연구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을 보라.

11) George Coats, 윗글, 78.

12) 영어로 비교하면 "let go"라는 의미의 동사와 "bring into"라는 동사가 대조된다고 볼 수 있다.

www.kci.go.kr

라엘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결국 이스라엘과 재앙의 수단으로 애굽 땅에 들어가는 메뚜기 떼는 함께 애굽 땅 안에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재앙에서는 애굽 땅이라는 한 공간을 결코 공유할 수 없는 두 존재들이 이스라엘과 메뚜기 떼가 된다.

우박의 경우처럼 메뚜기 떼도 신적인 심판의 일반적인 상징[13]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불길한 신호로 사용되고 있다.[14] 메뚜기들이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이들의 무수한 출현 자체가 이미 신이 진노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약 성서의 기록에서 뿐만 아니라, 고대근동과 아프리카에 걸쳐서 메뚜기 떼는 두려운 재난으로 이해되었다.[15]

5절에서 '땅의 표면' (עֵין הָאָרֶץ 엔 하아레츠)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땅의 눈' 이 된다.[16] 여기서 '눈' 은 '표면(surface), 외양(appearance)' 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는 이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가 애굽의 눈을 덮어서 그 땅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17] '보다' 라는 동사와 '눈' 이라는 명사는 잘 조화를 이룬다. 땅의 눈은 가려지고, 애굽 사람들의 눈은 땅을 볼 수 없었다는 대조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

사실 많은 메뚜기들로 인해서 땅을 볼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땅과 연관시켜서 표현한 것을 보면 결국 메뚜기들의 숫자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이유는 단순히 그 숫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땅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메뚜기 재앙은 땅을 향한 재앙이라는 관점을 보여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5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우박 재앙이다. 이 메뚜기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예고의 말씀인 이 구절에서 앞서서 내렸던 우박 재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온다는 사실인데 이런 경우는 메뚜기 재앙의 기록이 유일하

---

13) 신 28:38, 42; 대하 7:13; 렘 51:27; 암 4:9; 7:1.

14) Terence Fretheim, 윗글, 127–8.

15) James K. Hoffmeier, *Israel in Egypt: The Evidence for the Authenticity of the Exodus Tradition*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148.

16) 구약 성서에서 이 표현은 다른 구절에서도 발견된다. 민 22:5, 11. 탈굼 옹켈로스(Targum Onqelos)에는 '태양의 눈'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7) William Propp, 윗글, 336.

www.kci.go.kr

다.[18] 다른 모든 재앙들의 기록에서는 해당 재앙이외의 재앙에 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드는 이것을 '경감(mitigation)'의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즉, 우박의 재앙에서 죽지 않았던 곡식들과 사람과 종들이 있었던 것을 재앙의 '경감'이라고 보고 이번 메뚜기 재앙에서는 이런 여지를 모두 없앤다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우박의 재앙을 언급했다고 본다.[19] 그러나 필자는 굳이 이런 개념을 도입하지 않아도, 메뚜기 떼가 먹어치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의미에서 우박의 재앙이 언급되었다고 본다. 다른 재앙에서는 재앙을 견디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없었지만 우박 재앙에서는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결고리로서 우박 재앙이 언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구리 재앙에서도 개구리들이 바로와 신하와 백성들의 집에 들어갔었다(출 8: 3). 6절에 따르면 메뚜기들도 집안에 가득 차게 되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의 체험을 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땅 위에서 살기 시작한 때부터'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치사 עַל 이 사용되어 이스라엘이 땅 표면을 딛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서 땅과의 접촉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메뚜기 재앙의 타깃이 물론 땅에서 나는 작물들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땅을 향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땅에서 나는 작물들은 땅을 향해 내리는 재앙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피해자가 되는 셈이라고 하겠다.

6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의 역사 이래로 이런 것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 앞의 재앙인 우박의 경우에도 등장했던 표현이다(출 9: 18, 24).[20] 그만큼 많은 메뚜기들이 애굽 사람들의 집 안에 생겼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처음에 메뚜기들은 땅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이 생긴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사람들의 집으로 들어온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아직까지 직접 메뚜기 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단지 예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후반부의 본문을 통해서 예고와

18) 12절과 15절도 우박재앙이 언급되어 있다. Ford, 158.

19) W. A. Ford, *God, Pharaoh and Moses: Explaining the Lord's Actions in the Exodus Plague Narrative* (UK: Paternoster, 2006), 158.

20) 장석정, "일곱째 재앙 경고(출 9:13-21) 재고," 「구약논단」 40집 (2011년 6월), 6-32.

www.kci.go.kr

결과를 비교해서 연구하기로 한다. 결국 재앙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1) 메뚜기 떼가 우박의 재앙에서 살아남은 곡식들을 먹어치운다. 2) 그들이 애굽 백성들의 집에 가득 차게 된다. 이 중에서 첫째는 현실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식량이 모두 없어지는 상황을 예상하게 해준다. 동시에 둘째는 불길한 징조로 간주될 수 있다.[21] 개구리 재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적인 존재들의 무수한 출현과 그들의 집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은 신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전조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22]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본 논문의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메뚜기는 파멸을 가져오는 존재로 간주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바로의 신하들의 반응: 7절

"언제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라는 내용이 기록된 7절에서, '이것'(זֶה 제)이 가리키는 것이 '모세' 혹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지만, LXX의 번역처럼 '이 일'(this matter), 즉,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는 제안도 있다.[23]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은 '이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상황에서,[24] 이러한 LXX의 번역이 오히려 MT의 본문과 일치되고 있다고 하겠다. 모세만이 함정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 함정이 된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문의 7절 중반부에서 보내 줘야할 목적어가 '사람들'이 아니라, '남자들'로 이해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25] 왜냐하면 히브리어 본문은 הָאֲנָשִׁים(하아나쉼)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람들'[26]이라는 번역보다는 '남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뜻을 잘 나타낸다고 본다.[27] 물론 이 단어가 종종 '인류' 혹은 '(죽을

---

21) Terence Fretheim, 윗글, 127.

22) 애굽의 기록에서 개구리는 여신 Heqet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온다. William Propp, 윗글, 349.

23) 윗글, 337

24) NRSV는 "this fellow"로 번역하고 있으며, 우리말 성서에 있어서는 개역판, 개역개정판, 그리고 표준새번역 성서 모두가 이 단어를 "이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25) 더햄은 성인 남자(adult males)을 의미하는 것이며, 모세와 아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 모세와 아론을 내보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성인)'남자들'이라는 번역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John Durham, 윗글, 136.

26) 개역개정판과 표준새번역 성서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27) William Propp, 윗글, 337.

www.kci.go.kr

운명으로서의) 인간' 이라는 의미를 전하기도 한다.[28] 그러나 여전히 일반적인 맥락에서 '남자' 를 뜻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가 누가 갈 것인가를 묻고 이에 대한 결론을 '장정들' (הַגְּבָרִים 하게바림)만 가라고 하는 11절의 상황과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하겠다.[29]

3) 바로와 모세의 대화: 8-11절

8절부터 바로와 모세의 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아직 메뚜기 재앙이 실제로 내린 것이 아니고, 재앙에 대한 예고의 말씀만 소개되었는데,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선 7가지의 재앙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황이다.[30] 이는 재앙의 실질적인 체험이 아니라도, 재앙에 대한 예고의 말씀만으로도 재앙을 겪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항상 예고된 대로 정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끔찍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지금부터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예고말씀을 그대로 믿고, 미리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예고=재앙' 이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것은 여덟 번 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와서야 실현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의 단서가 붙는데, 그 단서의 내용은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다. 여호와를 섬기러 갈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다.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누구와 누가' (מִי וָמִי 미 바미)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히 누가' 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1] 바로도 대략적으로 성인남자들이 간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알고 싶었다는 것을 이 표현은 암시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확하게 누가 사흘 길을 가서 여호와에게 제물을 드릴 것인가를 묻고 있다.

---

28) W. A. Ford, 윗글, 160.

29) 포드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첫째는 사람들을 보내서 왕 대신에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는 것이며, 둘째는 '남자들' 을 보내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는 것이다. 3일을 가서 지켜야 하는 절기에는 남자들만 가면 되지 왜 어린 아이들도 가야 하는가? 라는 것이 바로의 질문이라고 하겠다. 윗글, 160.

30) 장석정, "이 재앙(출 8:16-19)의 새로운 이해", 「구약논단」 17집(2005년 4월), 9-31.

31) William Propp, 윗글, 337.

www.kci.go.kr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함께 행동하고 체험하게 될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만을 보내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전부 다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무언의 제한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바로의 물음에는 그 당시의 관습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신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성인남자들에게 국한된 일이었다는 사실이다.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바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해 두기 위해서 묻고 있다.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노인들, 딸과 아들들을 다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인가?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제의관습은 남녀노소가 다 참여하는 것이라고 모세는 주장하는 것인가? 성인남자가 제물을 바치는 제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명기와 사무엘상의 본문들에 따르면 절기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요구한다.[32] 자녀와 노비와 과부들까지 모두 절기를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볼 수 있겠다. 특별히 바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 관하여 모세는 그들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절기를 지키는 것에 관해서는 이스라엘은 매년 3번의 절기를 지켜야 하며, 모든 남자가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출 23: 17). 즉, 성소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남자들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바로가 이런 이스라엘의 절기규정을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고대근동에서 공유되었던 관습이라고 볼 수 있다.[33] 따라서 바로가 모세의 절기를 지키러 간다는 요청에 따라서 성인남자만 나가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모세의 대답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물(양과 소)이 여호와께 속한다는 개념이 소개되어 있다. 즉, 이들 전부가 하나도 빠짐없이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34] 이는 고대 근동에서 공유

32) 신 16: 11, 14; 31: 12; 삼상 1: 3–19.

33) 이에 관해서 더햄은 출애굽기의 내러티브 부분들의 신학적인 성격을 강조하려는 특별한 작업들(touches) 중의 하나라고 본다. John Durham, 윗글, 136–137.

34) Cornelis Houtman, 윗글, 107.

www.kci.go.kr

하고 있던 일반적인 관습인 성인남자가 신에게 절기를 지킨다는 개념과 대조된다고 볼 수 있다.[35] 물론 이스라엘도 성인남자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관습이었지만, 여기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바로에게 모세가 처음 애굽을 나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부터, 그 이유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다(출 3: 18).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다. 진정한 출애굽의 이유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소유한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가야 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누가 갈 것인지를 묻는 바로의 질문은 모세의 표면적인 출애굽의 구실에 대한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모세의 대답은 이런 표면적인 구실이 아니라, 출애굽의 본질적인 이유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의 질문에 합당한 대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9절에서 '가다' (הָלַךְ 할락)라는 동사만 사용되고, '오다' (בוֹא 보)라는 동사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가서 차지해야 할 '땅'을 부각시켜 주는 동사의 사용법이라고 하겠다.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바로는 자신이 이해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 여호와에게 절기를 지키려면 장정들만 보내주려고 했었다.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이미 그들의 의도를 파악했지만, 11절에 따르면 여전히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모세의 말로 인해서 화를 내면서도 여전히 장정들은 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해는 "그것이 너희가 바라던 것이다"라는 바로의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원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요구한 것이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면 여호와가 내릴 메뚜기 재앙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이 요구했던 것을 수용해야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나타나 있다. 처음 바로에게 애굽을 나가도록 허락을 청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의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35) Cornelis Houtman, *Exodus* Vol.1 (Kampen: Kok Publishing House, 1993), 377.

www.kci.go.kr

1) 절기를 지키러 3일은 출애굽해야 한다=장정들만 갔다 오겠다 (바로의 이해)
2) 바로는 허락하지 않았다--재앙이 내림(일곱 가지 재앙들을 경험했다)
3) 여덟 번 째 재앙의 예고
4) 예고된 재앙은 내리지 않게 하려고 출애굽을 허락한다
5) 장정들만 나갈 것이라고 바로는 이해하고 있다.
6)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가야 한다(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힌트).
7) 바로의 결론--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갔다가 돌아오라--바로의 이해)
8) 일방적 통보 후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서 쫓아냈다.

여기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쫓겨났다' (גָּרַשׁ 가라쉬)는 동사는 12장 39절에서 이스라엘이 무교병을 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사용되었다. 즉, 그들이 쫓겨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11절에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보내주게 되는 '출애굽' 에 대한 암시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36]

바로가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고서, 모세와 아론의 반응을 듣지도 않고 쫓아낸 것은 그들이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논의를 종결하는 모습이라고 하겠다.[37] 그러나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면, 예고된 메뚜기 떼의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가도록 해 주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것이었을까? 바로의 행동을 보면 전자를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참했다. 왜 이런 재앙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장정들만 가라고 한 것은 결국 모세와 아론이 처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절기를 지키러 광야로 가겠다는 요청을 수락한

36) Obadiah ben Jabob Sforno, Italian Jewish Commentator, c. 1470–1550 C.E. William Propp, 윗글, 338에서 재인용.

37) Cornelis Houtman, 윗글(1996), 108.

www.kci.go.kr

것이라고 바로는 여겼을 것이다. 이렇게 요청을 수락했으니, 장정만 갔다고 오든지 아니면 아무도 안 가든지 그것은 이스라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바로로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여겼다고 보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고된 재앙은 내리지 않아야 한다고 바로가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절기를 지키러 가는데 장정들만 가는 것이 마땅하고 자신은 그런 허락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 버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새로운 논의점이 생긴다. 그것은 처음에 절기를 지키러 광야로 3일을 가야 한다는 요청 자체가 원래 목적을 숨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할 수는 없었지만, 진정으로 완수해야 하는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일이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이유를 대면 어떤 왕이 나가라고 하겠는가 하는 점이 고려되겠지만, 여전히 모세가 바로에게 말한 출애굽의 이유는 실제적인 이유와는 달랐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런 요청에 대해서 바로는 그 당시 신에게 절기를 지키는 관습에 따라서 이해하고 있는 대로, 요청을 들어준 것이라고 본다면 바로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장정만 가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애굽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포석이라고 생각된다. 원래의 요구도 그랬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정들이 돌아오도록 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38] 처음에는 장정들이 3일을 나갔다 오는 것도 불만이라서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애굽 땅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장정들이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것을 허락했고 이는 결국 이들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허락이었다.

4) 메뚜기 재앙: 12–15절

12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은 메뚜기 재앙과 그 피해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12절에 따르면, 이번 재앙에서도 모세는 손을 뻗는데 우박의 재앙의 경우처럼 하늘을 향해서가 아니라, '애굽 땅 위에' 뻗으라고 명을 받고 있다. 13절의 내용처럼 '바람' 으로 인해 메뚜기 떼가 오게 될 것이라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손을 뻗은 것이 자연스럽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 위에 뻗는 것은

38) 윗글, 109.

www.kci.go.kr

이런 '땅을 향한 행동' 이 결국 메뚜기 떼를 땅으로 오게 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더구나 우박 재앙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작물들을 먹는데, '땅에 있는 작물' 을 먹게 된다는 것이다. 여전히 모세의 손이 향한 방향과 메뚜기 떼의 생기는 곳, 그리고 피해를 입는 작물이 있는 곳 모두가 '땅' 이라는 공통분모에 집약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밤새도록 여호와는 '앞으로(קָדִים) 부는 바람' 을 불게 하고,[39] 이 바람의 영향으로 메뚜기 떼가 애굽 땅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하겠다. 없던 것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원래 다른 곳에 있던 것을 바람으로 애굽 땅으로 옮겨 온 것이다.[40] '여호와가 앞으로 부는 바람을 그 땅에 불러왔다' 라는 13절의 내용은 이 메뚜기 재앙이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애굽 땅' 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칠십인역에는 '앞으로 부는 바람' 대신에 '남풍' 이라고 번역 되어 있으며, 이는 애굽의 상황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메뚜기 떼를 몰고 온 바람은 팔레스타인의 상황에서는 '동풍' 으로 볼 수 있지만, 애굽에서는 '남풍' 이기 때문이다.[41] 칠십인역이 애굽의 상황에 맞게 '남풍' 으로 번역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단어(קָדִים 카딤)를 '동쪽' 으로 번역한다면, 히브리어 본문은 애굽의 상황에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대입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42]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이 '동풍' 이라는 제한된 방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는 바람' 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이야트(J. Hyatt)는 동풍을 지지하는데, 그 이유는 아라비아와 시내반도가 메뚜기 떼가 서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라고 한다.[43]

---

39) 히브리어의 정확한 의미는 이렇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앞으로' (forward)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동쪽' 을 뜻한다. William Propp, 윗글, 338.

40) 파리재앙도 다른 재료로 파리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었지만, 메뚜기 재앙과 차이가 있다면, 파리들은 바람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 유입되었다기보다는 여호와가 나타나도록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John Durham, 윗글, 137.

41) Cornelis Houtman, 윗글(1996), 110. 라슨(Larsson)은 메뚜기 떼가 남쪽이나 서쪽으로 애굽에 들어온다고 보고, '동풍' 이라고 번역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Göran Larsson, *Bound for Freedom: The Book of Exodus in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9), 70.

42) 프랍(W. Propp)도 엘로히스트(Elohist)가 이렇게 '동풍' 으로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William Propp, 윗글, 338.

43) J. P. Hyatt, *Exodus* New Century Bible (London: Oilphants, 1971), 124. J. K. Hoffmeier, *Israel in Egypt* n.141에서 재인용.

www.kci.go.kr

14절에서 재앙의 실상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을 보게 되는데, 메뚜기 떼는 '애굽의 모든 땅 위에' 몰려왔다고 되어 있다. 이것을 더 상세히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애굽의 온 영토'(גְּבוּל 게불)에 내려앉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메뚜기가 '빽빽하게'(כָּבֵד 카베드) 몰려왔다는 사실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 메뚜기들이 '애굽 땅 위에' 앉았다는 것이다. 이 구절은 메뚜기 재앙의 근본적인 타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본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절이 될 수 있다. 정작 메뚜기들이 어떤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메뚜기들이 애굽의 온 땅에 내려앉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저 메뚜기들이 나타났다고 해도 될 것을 굳이 땅과 영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들은 애굽 사람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해를 끼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말이다.

15절에서는 메뚜기를 뜻하는 אַרְבֶּה(아르베)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כָּסָה 동사(카사/ '덮다')의 피엘(Piel) 3인칭 남성 단수 형태만 사용되고 있지만, 의미상으로 '메뚜기 떼'가 온 '땅의 눈'[44]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되었다고 번역할 수 있다. '온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되었다'는 표현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수가 내려앉았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땅'을 빗대서 보여준다. '어둠'은 '죽음'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죽은 자들의 영역이 어둠의 거처(the realm of the dead is the abode of darkness)'라고 하겠다.[45] 결국 이렇게 죽음이 가득한 애굽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메뚜기 떼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땅'을 중심으로 메뚜기 떼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 또한 메뚜기 떼의 재앙이 목표로 하는 것이 애굽 땅임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메뚜기들이 먹어치운 것들을 살펴보면, '땅에 있는 모든 작물들'과 '나무들의 모든 열매들'이다. 단순히 '모든 작물들'이라고만 언급해도 될 것을 굳이 '땅에 있는'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사용한 것을 보면, 메뚜기 재앙의 타깃이 애굽 땅임을 보여주며, 작물들은 땅에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볼

44) 5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히브리어 본문은 '땅의 눈'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45) Cornelis Houtman, 윗글(1996), 111.

www.kci.go.kr

수 있다. 메뚜기들이 직접 땅에 피해를 줄 수는 물론 없다. 그러므로 땅에서 자라는 작물들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땅에는 애굽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작물들이 없어지고, 애굽 땅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식량으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재앙의 피해를 입었다. 애굽 사람들은 비록 식량으로 쓸 수 있는 작물들과 나무 열매들을 모두 잃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당장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고, 더욱이 이스라엘을 보내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가능하면 이스라엘이 가진 것을 내놓게 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을 확률이 많아진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의 최종적인 타깃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일차적으로 먹어치우고, 그로 인해 땅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재앙의 목표이며, 이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은 결과로 오는 것이지 일차적인 재앙의 목적이 아니라고 보겠다. 또한 '애굽의 모든 땅에 걸쳐서' 나무나 들의 작물이 없었다는 15절 후반부의 내용도 '땅에 내린' 재앙으로서의 메뚜기 재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준다.

5) 바로의 간청: 16–17절

16절과 17절을 보면, 바로가 죄를 지은 대상으로 꼽은 것은 여호와만이 아니며, 모세와 아론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더구나 바로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으며, 여호와께 청해서 이 '죽음'을 없애달라고 한다. '죽음'이라는 단어로 대치할 수 있을 정도로 메뚜기 재앙이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6) 사라진 재앙과 바로의 완강함: 18–20절

앞 구절인 16–17절에서 바로가 간청을 할 때, 어디에서도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보내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는데, 왜 모세는 18절에서 재앙을 없애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 경우에도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독자들은 바로가 보내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야 하는 것인가? 본문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할 때 이 문제는 심각하다. 지금 각 재앙들은 오직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www.kci.go.kr

생략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사안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인지, 혹은 누락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모세가 재앙을 없애달라는 간구를 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는 바로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메뚜기들이 없어진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단순하게 메뚜기들이 땅에서 죽었다고 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는 까닭이 있을 것이다. 개구리 재앙의 경우에는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출 8:13)[46]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19절에 따르면, 동풍이 몰고 왔던 메뚜기들은 '바다 바람' (רוּחַ־יָם 루아흐 얌)[47]으로 인해서 홍해에 들어가서 죽게 된다는 것이며, 그 결과 '애굽 전 영토' 에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48] 결국 '애굽 땅' 에 메뚜기들이 죽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땅을 어둡게 만들 정도로 많았던 그들이 모세의 간구로 인해서 한 마리도 없이 깨끗하게 애굽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애굽 땅이 재앙에서 해방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다시금 애굽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된다는 말이다.[49] 결국 메뚜기 재앙은 '땅에 내린 재앙' 이었으며, '땅' 에서 메뚜기가 모두 사라진 것이야말로 재앙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46) 히브리어 본문으로는 8장 9절에 해당한다.

47) '바다 바람'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대부분의 번역성경은 '서풍' 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칠십인역은 '바다에서 온 바람' 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서 이것이 애굽의 상황을 고려하면 '북풍' 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칠십인역의 번역과 히브리어 본문이 '바다 바람'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상황에 대입해 볼 때만 '서풍' 으로 이해될 수 있고, 실제 이 재앙이 내린 애굽의 상황에서는 '북풍' 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Cornelis Houtman, 윗글(1996), 113; William Propp, 윗글, 339.

48) 이렇게 메뚜기 떼가 갈대바다에 들어가서 죽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는 운명에 대한 전조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바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등의 다양한 유사점들을 예로 들고 있지만, 이러한 관찰 자체가 메뚜기 재앙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Terence Fretheim, 윗글, 128. William Propp, 윗글, 339 에서 재인용.

49) 13절과 연관해서 보면 히브리어 본문은 '앞으로 부는 바람' 과 '바다 바람' 이라는 번역이나, 혹은 애굽의 상황을 그대로 대입해서 '남풍' 과 '북풍' 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칠십인역은 일관성 있게, **'남풍'** 과 **'북풍'** 이라고 번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햄도 바다는 애굽의 서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는 글자 그대로 직역(literal translation)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John Durham, 윗글, 137.

www.kci.go.kr

3. 어휘들의 사용빈도로 본 '땅'

메뚜기 재앙의 본문에 사용된 '땅'을 의미하는 다양한 명사들과 '보내다'와 '가다'라는 동사들의 사용빈도가 매우 높다. 이런 사실은 위의 분석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땅에 내린 재앙'으로서 메뚜기 재앙을 이해하는데 설득력을 높여 줄 것으로 보인다. 3-20절까지 사용된 각 어휘들의 사례들을 표로 만들어 보았다. 1부터 6까지의 숫자들은 각각 아래에 설명한 단어를 편의상 나타내고 있다.

1. '보내다' (שָׁלַח)가 사용된 경우 5회
2. '땅' (אֶרֶץ)이 사용된 경우 12회
3. '들' (שָׂדֶה)이 사용된 경우 2회
4. '땅' (אַדְמָה)이 사용된 경우 1회
5. '영토' (גְּבֻל)가 사용된 경우 3회
6. '가다' (הָלַךְ)가 사용된 경우 5회

3절:	1					
4절:	1				5	
5절:		2 (2회)	3			
6절:				4		
7절:	1					
8절:						6 (2회)
9절:						6 (2회)
10절:	1					
11절:						6
12절:		2 (3회)				
13절:		2 (2회)				
14절:		2			5	
15절:		2 (4회)	3			
16절:						
17절:						
18절:						
19절:					5	
20절:	1					

www.kci.go.kr

통계적으로 본다면, 우선 '땅' (אֶרֶץ 아레츠)의 사용빈도가 12회로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문맥을 고려할 때, '땅' 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שָׂדֶה(사데)와 אֲדָמָה(아다마)그리고 גֶּבֶל(게불)의 사용빈도가 합쳐서 6회에 이른다. 따라서 이것들을 합치면 총 18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사의 경우, 출애굽을 가장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שָׁלַח(샬라흐)동사의 사용빈도와 הָלַךְ(할락)동사의 사용 빈도가 동일하게 각각 5회씩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명사와 동사의 용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 메뚜기 재앙은 그 초점이 '땅' 과 출애굽 사건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둘 중에서 더 주도권을 갖는 것은 '땅' 이 되는데, 그 이유는 출애굽 사건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 땅에 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굳이 애굽에서 나올 필요가 없게 된다. 애굽 안에서 상황이 호전되어서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출애굽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야 할 땅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어휘들의 사용빈도를 분석한 결과, 메뚜기 재앙의 본문이 '땅' 에 대해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기록한 출애굽기 10장의 본문을 3절부터 20절까지 그 기록된 순서대로 분석하였다. 선행되는 일곱 가지 재앙들의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동시에 전체 열 가지 재앙의 맥락에서 조명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각 구절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번역과 다른 번역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순서대로 구절들을 분석하는 것이 전체 재앙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도 연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메뚜기 재앙은 다양한 표현들과 어휘들의 사용을 통해서 이 재앙이 궁극적으로 '땅에 내린 재앙' 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히 '땅'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과 땅을 암시하는 동사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사실 이외에도, 궁극적으로 메뚜기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라는 내용과 애굽 사람들이 그 땅 위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 경험하지 못한 재앙이 될 것이라는 내용들은 이 재앙이 타깃으로 삼는 대상이 '땅' 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

www.kci.go.kr

었다. 또한 작물들이 메뚜기의 피해를 입게 되는데, '땅에 있는 작물'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땅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하늘을 향해 손을 뻗을 수도 있는 것을 굳이 땅을 향해 뻗으라고 명하는 내용도 역시 재앙이 향하고 있는 곳이 다름 아닌 '땅' 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특히 15절에 나오는 '애굽의 모든 땅' 에 걸쳐서 나무나 들의 작물이 없었다는 표현은 결정적으로 애굽 땅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황폐화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애굽 전 영토에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메뚜기 재앙이 그 땅에서 사라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메뚜기 재앙이 원래 목표로 했던 것이 애굽 땅이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의 결과들은 연구자로 하여금 메뚜기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린 재앙으로써, 그 땅에서 자라고 있던 작물들을 메뚜기들이 먹어치우는 시각적인 피해들 속에 담겨 있는 황폐된 땅의 이미지를 발견하게 해 주었다. 이렇게 애굽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게 만듦으로써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갈 수밖에 없는 땅이 되게 하는 것이 메뚜기 재앙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려면 애굽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기 좋은 땅이 되어서는 안 되며, 땅 위에 남은 것이 없는 피폐된 땅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메뚜기 재앙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었다. 물론 본문을 피상적으로 읽어도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본 연구는 이런 결론을 본문 속에 거듭 강조된 '땅' 의 이미지를 통해서 메뚜기 재앙이 '땅에 내린 재앙' 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런 결론은 궁극적으로 출애굽 사건의 목적인 약속의 '땅' 으로 가는 것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황폐화된 애굽 땅을 떠나서 출애굽 하는 그 날까지 재앙은 계속될 것인데, 메뚜기 재앙은 애굽 땅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떠나야 할 땅임을 보여주고, 동시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겠다.

5. 참고 문헌

마르틴 노트, 「출애굽기」 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1). M. Noth, *Das zweite Buch Mose: Exodu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www.kci.go.kr

1973.
존 더햄, 「출애굽기」(손석태/ 채천석 옮김), 서울: 솔로몬, 2000. 원제는 John Durham, *Exodus* Word Biblical Commentary, (Texas: Word Books, 1987).
장석정, "첫째 재앙 재고(출 7:14-25)", 「신학사상」 128집 (2005년 봄), 35-58.
_____, "개구리 재앙(출 8:1-15) 재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0집 (2005년 7월), 71-96.
_____, "이 재앙(출 8:16-19)의 새로운 이해", 「구약논단」 17집 (2005년 4월), 9-31.
_____, "넷째 재앙(출 8:20-32) 재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7집 (2010년 1월), 5-26.
_____, "다섯째 재앙(출 9:1-7) 재고," 「신학사상」 150집 (2010년 가을), 7-36.
_____, "여섯째 재앙(출 9:8-12) 재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3집 (2011년 1월), 55-74.
_____, "일곱째 재앙 경고(출 9:13-21) 재고," 「구약논단」 40집 (2011년 6월), 6-32.
Assmann, J., *Moses the Egyptian: The Memory of Egypt in Western Monothe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Cassuto, U.,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Trans. by I. Abrahams: (Magnes, 1967).
Childs, B. S., *The Book of Exodus: A Critical, Theological Commentar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4).
Coats, G. W., *Exodus 1-18,* vol. IIA, FOTL, (Grand Rapid: Eerdmans, 1999).
Currid, John D., *Ancient Egypt and the Old Testament,* (Michigan: Baker Books, 1997).
Durham, J., *Exodus,* (Texas: Word Books, 1987).
Ford, W. A., God, *Pharaoh and Moses: Explaining the Lord's Actions in the Exodus Plague Narrative,* (UK: Paternoster, 2006).
Fretheim, T. E., *Exodu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91).
Gowan, D. E., *Theology in Exodu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www.kci.go.kr

Hoffmeier, J. K., *Israel in Egypt: The Evidence for the Authenticity of the Exodus Tradition,*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Hort, G., "The Plagues of Egypt", *ZAW* 69(1957) 84–103 & 70(1958) 48–59.

Houtman, C., *Exodus,* vol. 1 & 2, (Kampen: Kok Publishing House, 1993, 1996).

Humphreys, C. J., *The Miracles of Exodus: A Scientist's Discovery of the Extraordinary Natural Causes of the Biblical Stories,* (New York: HarperCollins, 2003).

Hyatt, J. P., *Exodus*, New Century Bible (London: Oilphants, 1971).

Larsson, G., *Bound for Freedom: The Book of Exodus in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Hendrickson, 1999).

Loewenstamm, S. A., *The Evolution of the Exodus Tradition*, Hebrew orig. 1965. (Jerusalem: Magnes, 1992).

Meyer, L., *The Message of Exodus,* (Minneapolis: Augsburg, 1983).

Morenz, S., *Egyptian Religion,* German orig. 1960,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1973).

Noth, M. *Exodus,* German orig. 1959.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62).

Propp, W. H. C., *Exodus* 1–18, AB 2. (New York: Doubleday, 1999).

Tov, I.,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Fortress: Minneapolis, 2001).

www.kci.go.kr

검색어

재앙
메뚜기
땅
출애굽
이스라엘

The Plague Fallen Upon the Land

Sok-Chung Chang, Ph.D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Kwandong University

Why do we have the account on the plague of locusts? In what sense the swarm of locusts becomes the plague at the time of Exodus?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narrative of the eighth plague, the plague of locusts in Exodus 10:3-20. The usage of the words denoting 'the land' indicates that the main target of the plague is directed to the land itself, not the plants on the land. The locusts made the land of Egypt desolate and barren, so that the people of Egypt and Israel could not live there. Especially many locusts made the land dark and covered the 'eye of the land'. This resulted in the consequence that the Egyptians could not see the land at all.

Also instead of the expression such as 'the plants', the author uses the phrase 'the plants in the land' in the text in order to indicate that the focus of the text is 'the land'. When Moses prayed, those locusts

www.kci.go.kr

were removed. The text maintains that "not a single locust remained in all the land of Egypt". To the author the purpose of the plague is the complete destruction of the locusts, especially from the land of Egypt. Many thought that the real victims of this plague were the plants and trees. However, a close analysis of the narrative of the plague shows that there is only one victim, that is, the land of Egypt. This land became desolate and the locusts did make it happen. Of course, the plants and trees were needed because the locusts wanted something to consume. But eventually the locusts were those which made the land of Egypt uninhabitable. Thus, the plague of the locusts was "the plague fallen upon the land".

www.kci.go.kr

Keywords

Plague
Locust
Land
Exodus
Israel

■ 투고일: 2012년 3월 16일
■ 심사일: 2012년 5월 10일
■ 게제 확정일: 2012년 5월 14일

www.kci.go.kr